

칼럼

임성욱 시인·사회복지학박사



금수저는 부채의식 가져야

금수저! 인구에 회자되고 있는 불평등의 대명사다. 이들은 대를 이어 금수저 놓음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최대의 판은 대대손손 이어지는 재벌가다. 여기에 다 국악적인 감질까지 더한다. 요즘 한창 뜨고 있는 한진그룹을 비롯해 상당수의 재벌들이 그렇다. 이것이 미국 등 선진국의 재벌과 한국이라는 나라에 존재하는 재벌들의 다른 점이다. 그야말로 엽전들의 작태다. 참피스롭다.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그들의 치졸한 작태들을 보면 말이다.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부모를 선택할 수는 없다. 그저 숙명적으로 그 누군가에 의해 그 집의 자녀로 태어나는 피조물일 뿐이다. 그런데 그 결과물들의 운명은 엽전나게 달라져버린다. 그 첫 번째는 어떤 피부색깔로 태어나느냐는 것이다. 민주주의가 고도로 발달

해가고 있다는 오늘날에도 피부색에 따라 편이한 대접을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일명 '인종시장'이라 불리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이 흑인이었을 때도 흑인에 대한 차별은 강했다. 경찰관들의 총격대상이 대부분 흑인이다. 사실 피부색이 뭐가 그리 중요한가. 능력에 대한 비교기준이 되는 것도 아니잖은가. 그냥 운명적으로 그렇게 태어났을 뿐이란 말이다. 피부색은 단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산물일 뿐이다.

인류학자들에 의하면, 지금으로부터 약 4백만 년 전에 열대우림 지역에서 생의 부지를 위해 대륙의 각지로 흩어지면서 적응하기 위해 피부가 변했을 뿐이다. 아프리카 지역으로 간 사람들은 뜨거운 자연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검정으로, 북위도 지역에서는 자외선을

받아들이기 위해 하얗으로, 온대 지역에서는 그에 적응하기 위해 희지도 검지도 않은 황색으로 변했을 뿐이다. 단지 그랬을 뿐이다.

그런데도 인간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삶의 척도가 된다는 것을 결코 부인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황인종인 우리나라 사람들을 역시 마찬가지다. 대체로 백인을 선호한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당사자들도 가능하면 하얀 피부를 가지려 노력한다. 엄청난 돈까지 투여하면서.

두 번째로는 어느 국가에 태어나느냐다. 강대국이나 복지가 잘 된 나라에 태어나느냐의 여부에 따라 삶의 형태가 달라져버리기 때문이다. 세 번째, 어느 계층에 태어나느냐이다. 피부색도, 지역에도 상관없이 일명 물질적으로나 사회계층적으로 상위계층에서 태어나면 금수저가 되는 것이다. 물

론 피부색과 국가까지 좋으면 금수저가 될 것이다.

그런데 사실 금수저는 그저 불로소득자일 뿐이다. 본인의 의지나 노력과는 전혀 상관없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인간의 순위는 여기서부터 결정돼 버린다. 이게 우리에게 삶이다. 너무나 불공평하지 않은가. 사실 금수저들은 태생적 불평등관계를 활용해 비교우위적 삶만 살아갈 뿐인데,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부채의식을 가지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배풀어야 마땅하다. 그것이 도리다. 그런데도 그렇지 않은 게 현실이다. 오히려 태생적으로 주어진 삶에다 살아가면서 더욱더 많은 것들을 획득해서 거기에 더해만 가고 있다. 추하고 더러운 감질까지 하면서.

현재 말쑥 되고 있는 재벌들의 금수저 문제 등이 바로 그중 하나다.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도 말이다. 때문에 논의되고 있는 이 시점에 확실하게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철두철미하게 정리를 하자면 말이다. 만약 유아무야 넘어간다면 그렇잖아도 실업 등의 문제로 가슴앓이 하는 서민들을 두 번 죽이는 꼴이 되기 될 것이다. 흠수저로 태어난 것도 서러운데 피눈물까지 쬐어야 되겠는가.

社說

고유가가 서민경제 옥죄다

체감물가가 들쭉이는 가운데 지난달 수입물가마저 3년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수입물가 상승은 시차를 두고 생산자물가와 소비자물가에 반영되는 만큼 서민 경제의 주름살을 키울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4월 수출입 물가지수에 따르면 수입 물가지수는 85.03(2010=100·원화 기준)으로 한 달 전보다 1.2% 상승했다. 2014년 12월 86.54 이후 40개월 만에 최고치다. 수출물가 역시 지난해 9월 1.8% 이후 최대다.

수입물가는 지난 1월부터 4개월 연속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1년 전과 비교하면 4.0%나 뛰었다. 수입물가를 끌어올리는 최대 요인은 국제 유가다. 3월 평균 배럴당 62.74달러였던 두바이유는 지난달 평균 68.27달러로 한 달 사이 8.8%나 상승했다. 수입 품목별로는 원유 8.4%, 나프타

5.2%, 병커C유 6.0%, 천연가스(LNG) 3.4% 등으로 상승 폭이 컸다.

문제는 앞으로다. 이란발 원유 공급 차질과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국제 유가는 추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에서는 적게는 배럴당 75~80달러, 많게는 1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의 기준금리 인상과 맞물린 달러 강세 현상도 물가에는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 유가와 환율이 지금은 수입물가 변동 폭을 줄이는 '상쇄 효과'를 내고 있지만 앞으로는 변동 폭을 키우는 '승수 효과'를 발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서민 경제에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가상승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기고

이을신 무안경찰서장



가정폭력 근절, 화목한 사회의 첫걸음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라는 옛말은 우리에게 무척 친숙하다.

이 고사성어는 우리사회의 가장 기본단위로서 구성원의 인격과 가치관이 형성되고 인식처가 되는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한 표현이다.

그러나 즐겁고 화목해야 할 가정이 가정폭력으로 병들어가고 있는 경우가 많아 안타까운 것이 현실이다.

흔히 집에서 가족끼리 다투거나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직장에 나와서도 일이 잘 풀리지 않았던 경험은 누구나 있을 것이다. 이렇듯 사회생활의 시작점이자 축소관인 가정이 병들고 무너지기 시작한다면, 그 위에 쌓여올려진 학교, 직장 등 상위 조직은 안전

할 수 있을까?

문제는 가정폭력이 민영화 되면 강력범죄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가정폭력 근절이 절실한 실정이다. 때문에 경찰은 가정폭력 근절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일단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조동조치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 출입·조사 거부 시에도 현장에 진입하여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시켜 조사하는 등 응급조치 할 수 있다.

또한 재발우려가 있고 긴급·심각한 상황일 경우 '긴급입소치'가 가능한데, 현재 주거 등에서 일시 격리시키는 1호 조치, 주거·직장 등에서 반경 100M 이내 접근 금지시키는 2호 조치, 마지막으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을 금지시키는 3호 조치가 그 내용이다.

이외에도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임시조치' 및 '피해자 보호 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 주고 있으며, 1366(여성긴급상담전화)을 통하여 24시간 상담, 센터 제공을 받을 수 있고,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등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사건발생시 '가정폭력 진담 경찰관'을 지정하여 가·피해자 조사 및 상담을 진행하게 되며, 지구대·파출소에서 출동했던 가정폭력 사건의 초동조치를 점검하여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가정폭력 사건 초동조치 단계에서부터 '사소한 폭력도

명백한 범죄'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가해자에게 반복 전달하여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성격·행동 교정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독려하여 재발을 막는데도 힘쓰고 있다.

우리 사회의 근본인 가정을 병들게 하는 가정폭력,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경찰은 물론, 정부 및 각종 협력단체가 나서 가정 화목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가정폭력의 원인과 해결책을 함께 연구하고 있다.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바람직한 방법은, 우리 서로가 관심을 가지는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가정폭력은 이웃집 문제일 뿐.'이라고 생각하여 우리 이웃에게 무관심하다면 아무리 좋은 정책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그 효과는 반감되고 말 것이다.

소문만복래(笑門萬福來)라는 옛말이 있다. '웃는 문으로 만복이 들어온다.'는 말로 가정 화목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의미로 쓰이기도 하는 말이다. 우리 가정의 화목도 중요하지만 이웃집의 웃음까지도 지켜준다면 우리사회의 미래는 더 밝고 행복해지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신문으로 배우는 千 字 文

榮 業 所 基

榮 業 所 基

▷ 뜻: 이상(以上)과 같이 잘 지킴엔 번성(蕃盛·繁盛)하는 기본(基本)이 됨.

본 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번지 점도프라자 5층) 서울 취재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Tel (02)2238-0003

명예회장 이신원 회장 정계조 발행·편집인 겸 부사장 최산순 총괄이사 이흥재 편집국장 강서원

1946년 3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문화융성 문화가 있는 날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보다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상대방을 미소짓게 합니다.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